

Nylon F, 중국수출 확대 절호찬스

중국, 타이완산 반덤핑 확정으로 ... 타이완의 대응 주목하며 관망

중국이 2004년 8월20일 타이완의 Nylon Fiber에 대한 반덤핑을 확정했다.

반덤핑 확정 이후 연평균 26만톤 가량 공급되던 타이완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 Nylon 생산기업들의 가동률이 90-100%로 30-40%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타이완산 Nylon을 수입하려면 보증금 형태로 일정액 이상의 선금을 지불해야 하며 7-10%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했으나 타이완은 뚜렷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Nylon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수출량 증가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료인 CPL(Caprolactam)의 수급이 타이트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에 국내 Nylon 섬유 가격인상을 통보한 시점에서 반덤핑 확정이 내려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9월 말 추석연휴가 있고 중국도 10월1-11일 연휴기간이기 때문에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CPL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확보 차원에서 매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수출 확대 기대 속에 중국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타이완산이 다른 곳에서 한국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Nylon 섬유 수출확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한유진 기자>

<화학저널 2004/09/09>